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쇠예방관리사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 실시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강화 및 맞춤형 역량 강화 추진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 이하 인재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한 노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8일)부터 '노쇠예방관리사업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노쇠예방관리사업에 시범 선정된 1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노쇠예방관리사업의 기획·운영 역량을 높이고, 주민참여 기반 건강관리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도시형)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서구 / (도농복합형) 강원 춘천시, 경북 포항시 북구, 경남 사천시, 경기 구리시(건강생활지원센터) / (농어촌형) 강원 평창군, 충남 청양군, 충남 금산군(건강생활지원센터)

□ 노쇠예방관리사업은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건강관리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관리자와 실무자, 건강활동가 양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한다.

□ ▲사업 관리자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사업 성과관리, 실행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자 과정에서는 노쇠 선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자 상담 및 사례관리 등 현장 실천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다. ▲건강활동가 양

성 담당자는 주민참여 기반 건강활동가 운영체계 구축과 교육 설계 및 협력과 소통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특히,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은민수 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쇠예방은 개인의 건강수명 연장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과제” 라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지역사회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통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노화와 통합돌봄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사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 전경 출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담당 부서	보건의료교육부	책임자	부 장 허 은 영 (043-710-9281)
		담당자	대 리 이 규 창 (043-710-9284)